

# “반란표 차단 부심” VS “표결 불참 고민”

### 여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사항

#### 靑 “인준안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되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철통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인준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야당의 분회의 출석 가능성 등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또 국정 공백 우려를 부각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주말 동안 민심을 고려한 ‘어론전’도 병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분회의가 불발된 지난 12일 이후 수차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16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표결 요건인 재적 의원의 과반(148명) 출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할 경우, 의결로 진행되는 인준 표결에 야당이 전격 참여할 경우, 민심이 민감한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까지 ‘반란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무엇보다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며 일단 여당의 단독 처리는 막았지만 터는 본회의 개최를 저지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선택의 기로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단 16일 본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자의 총리 자격과 새누리당의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하게 문제 삼고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안이다.

이 경우 비록 이 후보자의 인준안은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국회 표결 절차에 참여해 의

를 표시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자와 동향인 충청 출신 의원들이나 이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던 원내 지도부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반란표’를 둘러싼 내부 후유증뿐 아니라 인준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과 일부 나눠 지게 되면서 여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만 밝히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과 야에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야당이 국회 표결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을지언정 내부 이탈을 막음과 동시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여론의 역풍을 맞게 한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내일 인준안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16일 인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부분 개각 및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책회의장 들어서는 우윤근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靑, 이완구 총리 “부적합” 41% “적합” 29%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합’ 의견이 41%, ‘적합’ 답변이 29%를 각각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30%는 의견을 유

보했다. ‘부적합’ 의견은 새정치연합 지지층(64%), 30~40대(53%), 광주·전라(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적합’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층(51%), 60세 이상(55%), 대구·경북(45%) 등에서 우세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주말부터 강원도 모처에서 집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

## 박대통령 주초 개각·靑 비서실장 교체

### 비서실장 권영세·한덕수 거론

### 총리 인준시 17일 인사 단행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초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 등 여권진용 준비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5일 전했다.

청와대가 신임 총리의 제정을 받아 개각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박 대통령은 이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회동을 거쳐 설연휴 하루 전날인 17일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 일관적 관측이다. 그러나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인사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개각은 ‘소폭’이라는 점을 수차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발표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권영세 주중대

사. 권 대사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견인하고 같은 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개공공신’ 중의 한 명이다.

이와 함께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통합형 콘셉트의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회장은 최근 무역협회장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에다 참여정부 시절 재경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화

합형 후보로 거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이유에서 호남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개각과 관련하여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에는 해양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할 경우 후보로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더불어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

## “문화전당 특별법 제동 호남 차별”

### 주승용 최고위원,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9월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 예정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이 어렵게 된다”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주 최고위원은 “기존 특별법에 국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던 것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면서 광주 민심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소위를 통과했는데 새누리당이 특별법이 ‘광주 법’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막으면서 소위 통과 이후 2달이 넘도록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18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경주의 역사 문화중심 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며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이곳 광주만 제동을 거는 것은 호남 차별이다. 오는 24일 교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민간·지방정부 교류로 한일 우호 증진”

### 이낙연 전남지사, 양국 우호교류 투어 참석

이낙연 전남지사(사진)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한일우호교류투어’에 참석해 민간 및 지방정부 간 교류 증진을 한·일 우호 증진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독도, 위안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문제로 양국 정부 간 마찰이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왕래를 늘려 정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다.

전남도는 15일 “이 지사가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5 한일우호교류투어’ 환영의 밤 행사에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는 등 일본에 정통한 이 지사 취임 이후 일본 스키모토 세이카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일본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맞춤형 코스 상품을 구상하는 등 ‘일본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 일본여행협회(ANTA)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의원(자민당 총무회장), 벵소 고로 주한일본대사, 구보 시게토 관광청장관 등 민간 교류 및 관광과 관련된 일본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http://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 China** 중국 전문 여행업체  
[www.gochina.co.kr](http://www.gochina.co.kr)  
 저가견학하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말리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아티스트,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010 68  
 ☎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